

보호아동 증가, 일시보호시설에 가장 많이 머물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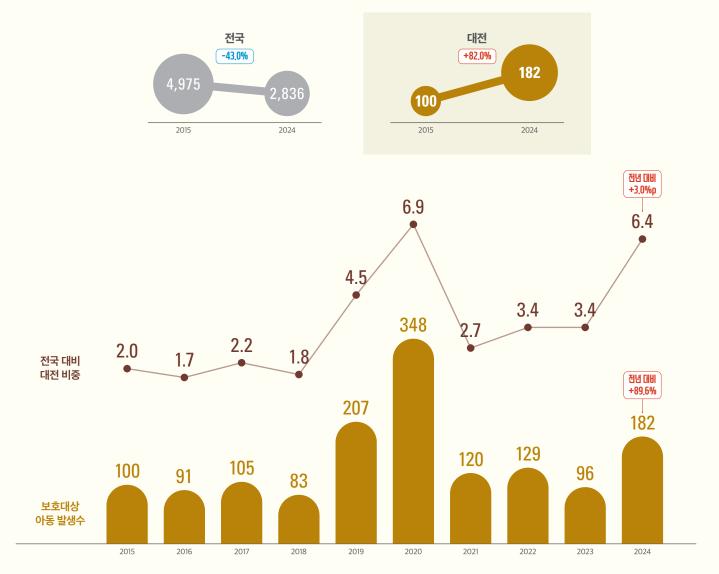
대전 보호대상아동은 2024년 기준 18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82% 늘었다. 발생 원인 중 아동학대가 68.6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는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일시보호시설 비율이 54.7%로 가장 높다. 가정위탁보호 비율은 18.2%로 전국(43.1%)보다 낮다.

대전 보호대상아동, 전년 대비 89.6% 급증

전국 보호대상아동이 2015년 4,975명에서 2024년 2,836명으로 43.0%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2024년 대전의 보호대상아동은 2015년 대비 82.0% 늘어나 2024년 182명에 달했다. 전국 대비 대전의 비중도 같은 기간 2.0%에서 6.4%로 3배 이상 확대됐다.

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

단위: 명, %



[·]보호아동 대상: 일반적으로 보호 종료 시점은 만 18세 미만이지만,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음(아동복지법, 제16조의3 제1항) ·출처: 보건복지부, 『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』

• • • •

보호아동 발생 원인, 학대가 68.6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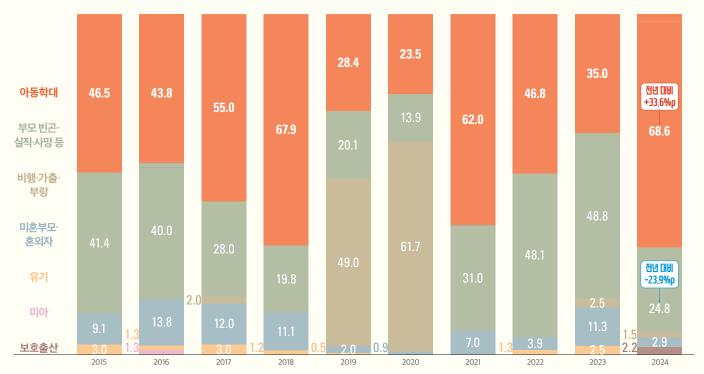
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182명 중 실제 보호 조치된 아동은 137명이다.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아동학대로 전체의 68.6%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33.6%p 증가했다. 반면 부모 빈곤·실직·사망 등으로 인한 비율은 24.8%로, 전년 대비 23.9%p 감소했다. 미아·유기 사례는 거의 사라졌고, 보호출산제가 새롭게 통계에 반영됐다.

대전 보호대상아동 현황(20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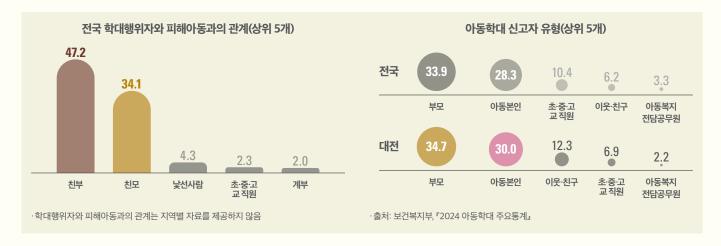


대전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 비율(2015-2024)

단위: %



- ·보호출산: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,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 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위기임부가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함(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, 제2조 제4호)
- · 부모 빈곤·실직·사망 등에 부모 질병·이혼·교정시설 입소 포함
- ·출처: 보건복지부, 『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』



시설보호 81.8%, 가정보호 18.2% 대전의 보호대상아동은 2024년 기준 81.8%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, 가정보호 비율은 18.2%에 그쳤다. 이는 전국 평균(시설보호 56.9%, 가정보호 43.1%)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. 특히 대전은 일시보호시설 비중이 54.7%로 전국(18.9%)보다 크게 높다. 반대로 가정위탁 비율은 15.3%로, 전국(35.7%)에 비해 절반 이하수준에 머물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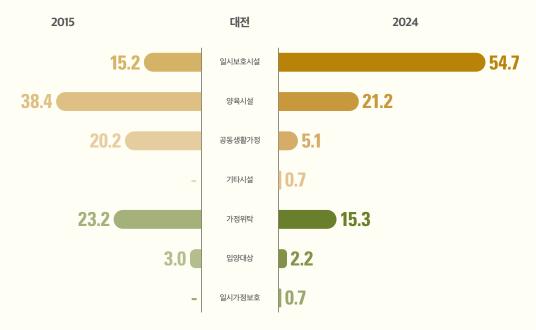
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현황

다위: %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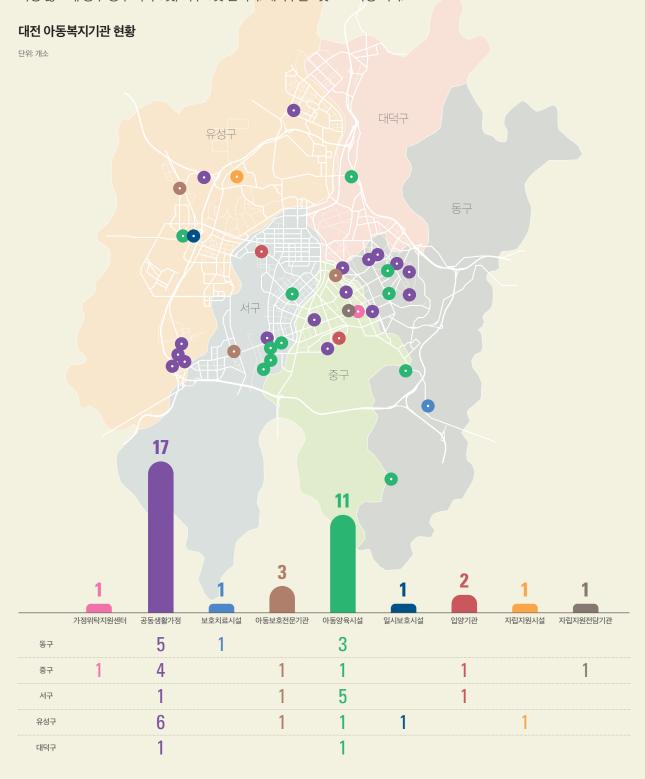




- ·기타시설에 보호치료시설 포함
- · 2022년부터 기존의 일시보호시설 항목을 별도 일시보호 조치로 구분하여 시설 및 가정형보호로 신설함. 따라서 추이 비교를 위해 일시보호 조치-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, 일시보호조치-가정형 보호는 일시가정보호로 분류하여 산출함
- ·일시보호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)
- · 출처: 보건복지부, 『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』

대덕구 아동복지시설 2곳, 자치구 중 가장 적어

대전에는 총 38개의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.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이 17곳으로 가장 많고, 아동양육시설이 11곳으로 뒤를 이었다. 자립지원시설과 입양기관, 보호치료시설 등은 각각 1-2곳 수준이다.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10곳으로 가장 많으며, 동구·중구 각각 9곳, 서구 8곳 순이다. 대덕구는 2곳으로 가장 적다.



[·]출처: 아동권리보장원, 아동복지기관 현황 조회(www.ncrc.or.kr), 검색일(2025. 10. 7.)

 \bullet

